

무한한 가능성을 짓다

무중력시대 대방동

이강수
강주형

(주)생각나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0-5
대지면적	1,646m ²
건축면적	231.6m ²
연면적	398.4m ²
건폐율	14.1%
용적률	24.2%
규모	지상 2층
구조	경량철골구조
시공	(주)동우공영
설계기간	2014.9.~2014.12.
공사기간	2015.1.~2015.5.
건축가	이강수, 강주형
설계팀	이택호, 오진영, 이한송, 홍창일



북측에서 바라본 건물 외부 야경



동쪽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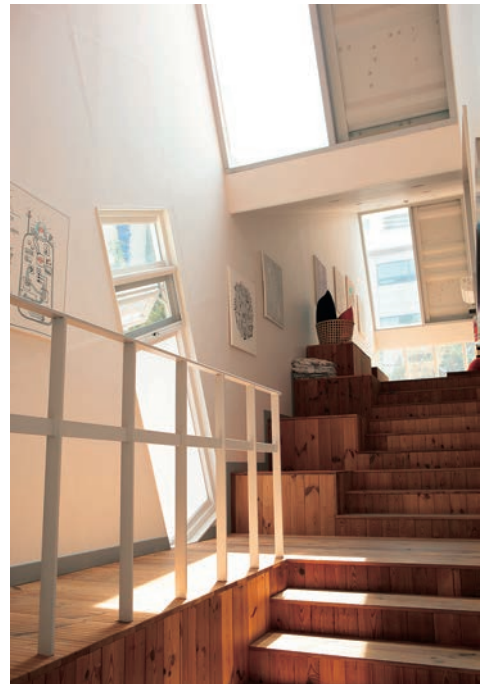




©주생각나무퍼트너스건축사무소



©주생각나무퍼트너스건축사무소



©주생각나무퍼트너스건축사무소

상 1층 라운지
하·좌 1층 라운지 부엌
하·우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단 라운지

컨테이너는
구하기 쉬운 재료로
건축공간 규모의
스케일에서
친환경적
순환구조를 가지고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유용한 수단이다.



©유정진나무페인트건축사무소

세미나실에서 바라본
1층 라운지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중력을 표방한다.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콘텐츠를 담은
 ‘무한하게 열린 플랫폼’이다.



©엘리나무퍼포먼스건축사사무소

1층 라운지에서 열린 공연 모습

건축 속 컨테이너의 등장

컨테이너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어디일까? 컨테이너 하면 거대한 무역 선박과 항구의 선착장에 층층이 적재된 풍경이나, 산업 도로를 끊임없이 오가는 트레일러 위에 실려 있는 모습이 떠오를 듯하다.

1960년대 이후 운송용 수단으로 최적화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산업·무역 분야에서는 당연하고도 친숙한 존재이지만, 일반적인 도시공간과는 떨어져 있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 컨테이너가 가득한 영화와 드라마 속 은밀한 범죄와 거래의 현장, 어두운 부두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그럼에도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적·문화적 요구에 따라 트렌드가 바뀌었으며, 국내에서도 컨테이너가 건축 공간과 건축 재료의 모습으로 도시민들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오는 기회가 늘어났다.

경제성과 가변성의 재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N포세대’라고 불리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의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은 13개의 컨테이너 볼륨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교류, 휴식과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여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중력을 표방한다. 이벤트와 세미나, 문화교류, 프로젝트 지원 등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콘텐츠를 담은 ‘무한하게 열린 플랫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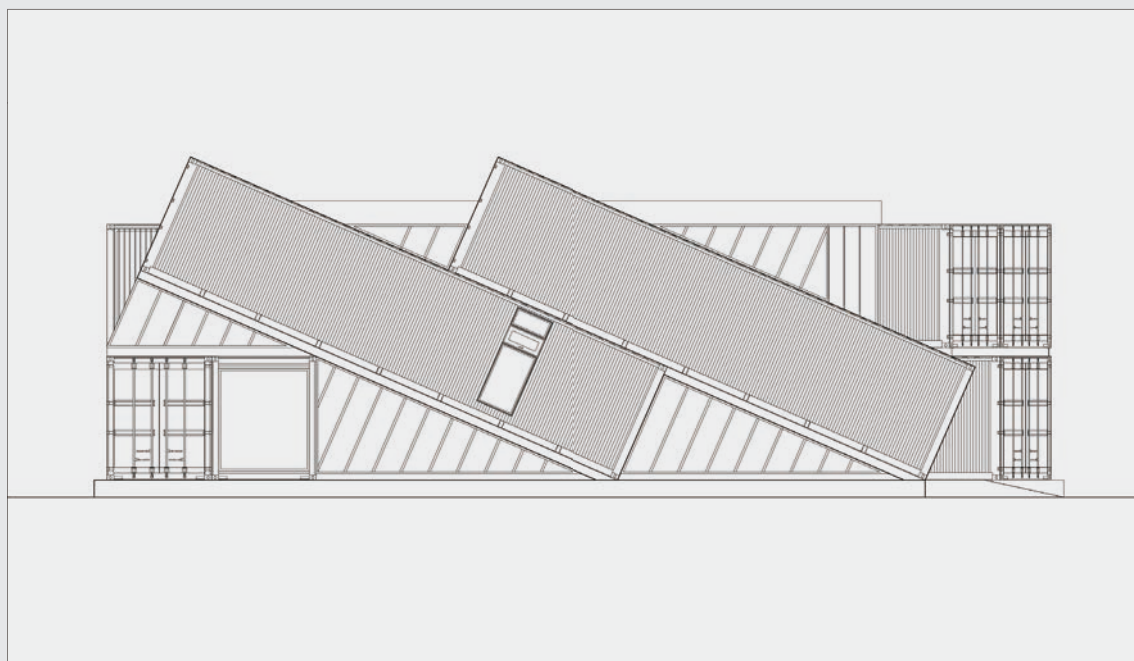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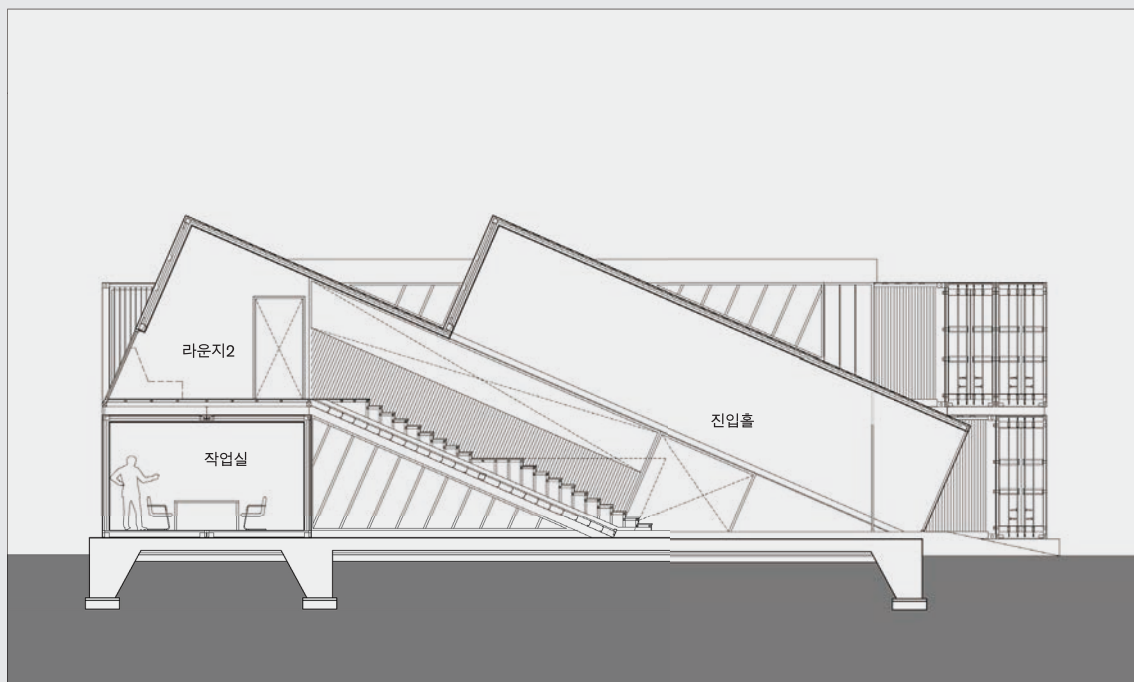
서울시는 젊은 층의 유동이 많은 노량진과 인접하여 위치한 대방역 근처 유흥지를 대지로 제안하였다. 이곳은 예전에 미군부대 시설로 사용되다가 미군부대의 이전 계획으로 개발 이전까지 주민들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개발 예정인 대지의 특성을 감안하고 책정된 예산과 일정을 고려하여 컨테이너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청년무중력지대·도시건축연구소



상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전면

하 북측에서 바라본 건물 외부



상 단면도
하 동측입면도

컨테이너는 구하기 쉬운 재료일 뿐 아니라 건축공간 규모의 스케일에서 친환경적 순환구조를 가지고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유용한 수단이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청년 종합 활동공간이라는 커뮤니티 시설을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담아내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표준화된 규격과 기밀한 마감, 그리고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내 공간으로의 변용이 쉽고 규모와 용도에 따라 여러 모듈을 조합해 필요한 면적으로 확대하기 수월한 편이다. 이에 더해 물결 모양(Corrugated)의 표면 패턴과 철문의 하드웨어는 구조와 개폐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산업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여 현대적인 트렌드를 표현할 수 있다.

도시 환경에서 다소 생경한 컨테이너 모듈은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무중력지대의 프로그램과 공간의 상징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도록 텃밭 인근 주차장 일부의 삼각형 모퉁이에 자리 잡도록 건물을 배치하였다. 주거지와 대방역 입구로 통하는 기존 주민들의 보행 동선이 방해 받지 않도록 고려한 것이기도 하였다.

컨테이너로 공간을 쌓다

기본적인 공간 구성은 메인 홀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 공간과 교류 및 휴식을 위한 공동 부엌과 휴게 라운지, 그리고 업무와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이뤄졌다. 여러 프로그램을 담기 위해 2개 층 높이의 메인 홀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모듈을 둘러쌓아 아트리움을 형성하였다. 컨테이너가 갖는 단위 모듈의 제한과 규격에서 벗어나 큰 공간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주변 공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과 배치를 구획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직 동선인 계단부를 활용하여 내부와 외부에서 역동적인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이경훈 국민대학교 교수는 컨테이너의 기능과 모듈이 어떻게 컨테이너 건축의 영역으로 전환되는가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경남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상 북측에서 바라본 건물 외부 야경
하 건설 과정 중의 모습



©(주)경리나우퍼티스건축사무소



상 세미나실에서 바라본 1층 라운지
하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단 라운지

“컨테이너는 그 자체의 완결성, 즉 건축으로서 자신을 지탱하고 방수의 기능을 가진 최소한의 공간, 건축이라는 점에서 완성된 유닛을 들어다 놓을 수 있는 이동 가능성과 일시성이 최대의 특성이자 한계이다.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 빌딩이라는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파괴하여야 가능하게 된다. 옆 공간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완결성을 깨뜨려야 하고 구체적 대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동 가능성을 포기하게 된다. 이 결과로 순수한 추상적 입방체가 건축의 재료가 되는, 보기 드문 경험을 하게 된다.”

「현대판 초가와 컨테이너」, 『SPACE』 577호, 2015.12., p55.

건축적인 재료가 되고 건축적인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 모듈이 갖는 기능성과 순수성이 전체적인 공간의 조화를 위해 변경되는 것이다. 무중력지대는 컨테이너 모듈의 조합과 합성 및 연계를 통하여 표면을 절개하고 이어 붙여 메인 홀 이외에 세미나실, 화장실과 나눔부엌, 사무공간과 테라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은 ‘외부-내부공간(컨테이너)-내부공간-내부공간(컨테이너)-외부공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컨테이너 볼륨을 통해 내외부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공간적 커로 작동한다.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내부공간이 벽이라는 2차원의 요소로 구획이 정해지는 반면 여기서는 3차원의 공간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3차원의 공간들은 경사를 주어 계단 공간으로 활용되는가 하면 화장실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컨테이너 유닛은 외부로 향해서는 외벽으로써, 내부로 향해서는 프로그램을 구분해주는 내벽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무엇인가를 담는 입방체로서 컨테이너의 숙명적인 역할일 것이다. 이런 점을 기본으로 컨테이너 모듈의 조합과 개폐를 통해 각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어 1층에는 나눔부엌·화장실·세미나실과 스튜디오가 있고, 2층에는 6개의 사무공간이 파티션을 통해 일정하게 나뉘어 있다.

컨테이너는 적재하거나 연계하는 건축적인 계획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체 프레임을 통해 구조 역할을 맡게 되므로 구조체로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절개한 부분을 중심으로 구조적 보강이 더해진 것이다.

확장과 개방, 무한히 열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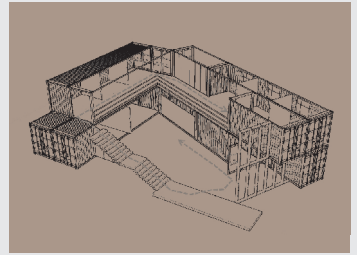
주민들의 평상시 이용 동선을 고려하였을 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지하철 대방역 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가장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인 사선의 컨테이너 마구리 부분을 열어주어 진입이 쉽게 하였다. 열린 개구부로 들어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마주하면서 메인 홀에 들어서는데, 메인 홀을 중심으로 모든 실들이 배치되어 처음 방문하더라도 커뮤니티 활동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지상층에 아트리움을 비롯하여 세미나실과 열린 주방이 있다. 휴식과 이벤트 그리고 소통과 교육을 위한 공간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특히 세미나실은 폴딩 유리문을 열면 아트리움으로 확장되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부엌과 화장실 같은 설비가 필요한 실들을 모아 하나의 볼륨으로 묶어 효율성을 높였고, 2층의 사무공간과 세미나실은 두 개의 모듈을 합쳐 사용 면적을 넓혔다.

사선으로 기울어진 두 개의 컨테이너는 상승·자유·도약의 이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계단, 휴식과 전시를 위한 공간이 되어 청년들에게 쉬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한다. 2층에서 사무공간으로 들어서기 전 컨테이너가 없어서 생기는 틈에 해당하는 공간은 자연채광을 받는 미니라운지로 활용된다. 메인 홀을 중심으로 컨테이너로 둘러싸이지 않은 북측 부분은 2개 층 높이의 투명창을 통해 개방감과 자연채광을 극대화하였다. 사선의 컨테이너 구성으로 얻은, 텃밭을 향한 동측 위아래 삼각형 모양의 창역시 자연채광이 풍부해지도록 돕는다. 외부에서는 컨테이너 하부로 덮여 그들이 생겨나는 휴게 데크를 제공한다.

2층은 6개의 사무공간이 아래층 아트리움이 내려다보이는 내부 발코니 형식의 복도로 나란히 이어져 창업·사무 활동 공간으로 쓰인다. 5개의 사무 공간은 열린 구획을 이루며 테라스와 함께 메인 홀을 둘러싸고 있다. 무중력시대 대방동의 운영주체를 위한 사무공간은 복도 끝에 위치하여, 관리자가 독립적인 공간에 있으면서도 내부 공간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트인 공간을 통해 충분한 자연채광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사용자와 방문자들의 시각적 연계를 추구하고 서로 간에 유대감을 증진시키도록 한 것이다.

©(주)경남주택도시건설공사



상 편리한 이용 동선을 가진 구조
중 1층 세미나실
하 2층 테라스



상 1층 라운지에서 열린 공연 모습
하 상층하는 형태로 뻗어 있는 무중력시대 대방동

컨테이너와 젊음, 두 가능성의 만남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세대로 전락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 청년층의 고민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치열하게 그 답을 고민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가의 방식으로 그 무엇에 대한 답을 무중력시대 대방동에 담아 보려고 하였다.

무중력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컨테이너의 활용이다. 이는 구조와 재료에 대한 건축적 실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친숙함과 대량생산 상태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본래 재활용 혹은 업사이클링의 개념이 강한 친환경적 순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술적·구조적·법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것이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컨테이너가 어떤 공간에 어울리고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무중력시대 대방동은 컨테이너 건축이 보여줄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도시 안의 유휴지와 결합하여 이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을 제시한다. 40피트 길이의 운송용 컨테이너 12개와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로 구성된 청년 종합활동을 위한 건축공간으로서 경제성과 가변성을 토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더불어 무중력시대 대방동은 건축적 아이디어, 청년들의 의지,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 등이 함께 만든 새로운 문화공간이다. 이곳이 사용자들의 에너지와 잠재력의 발현 속에 더욱 중요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중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